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음 4월 17일) 제229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대도약 예산확보 '동분서주'

송하진 도지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 '키맨'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요 현안사업 반영 건의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부처 예산이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연일 총력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송하진 도지사가 세종청사를 방문해 인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주력사업 제정개선 및 신산업 생태계 기반 동력 확보 국가예산 활동을 갖고 있다.

지속적인 신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전북대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내년 주요 전북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20일 부처예산 편성 임박단계에 접어들어 시점에 맞춰 기획재정부를 찾아 증액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송 지사는 기재부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키맨(Key man)을 연이어 방문해 주요 사업의 지원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인프라 시설을 활용해 가정편의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식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타거점연의식 지원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또 전북지역을 홀로그램 4차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비 265억원 반영과 군산항 자동차 수출물동량 확보를 통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 역할을 할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 50억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차원의 국학기관으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설계용역비 5억원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련 예산을 집중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익산왕궁 현업축사 매입비'

123억원, '김제 용지축사매입지역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 지휘부 등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활동을 다 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역 국학의원,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웅비하는 천년 전북' 전북 장애인 체전 오늘 개막

'웅비하는 천년 전북'이라는 구호 아래 21일부터 22일 이틀간 14개 시·군 2,750여명의 장애인체육인들의 화합 대제전 '2019 전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고창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육상을 비롯한 20개 정식종목의 열띤 경기를 펼쳐졌다. 고창군립체육관에서는 고창 국악예술단, 전자악기4중주, 인기가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대회기간 중 방문하는 손님맞이를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와 함께 교통질서 확립 등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음식점, 숙박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한 손님 응대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경기장 일원에서는 봄꽃을 심어 봄의 정취를 느끼며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준비했다.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장애인 체육의 선진지'로써 체육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종목 추가하는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장은성 기자

10년된 영화제작시설 최신식으로 탈바꿈한다

전주시,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 지원 공모 선정 정부 지원금 확보로 영화제작소 장비 '업그레이드'

올해로 20년째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해온 영화의 도시 전주시가 10년 된 영화제작시설을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지역영화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부문에 최종 선정돼 5억 75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 산업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영화인력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시는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인해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영화후반작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온 전주영화제작소와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의 장비가 신규 장비로 교체될 예정이다.

전주영화제작소와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는 영상 후반작업과 음향 녹음 등 영화제작 후반작업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과 2010년 개관했지만 그간 장비 노후화로 인해 작업효율이 떨어져 작업유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5억4500만원과 시비 2억4500만원, 자부담 등 확보한 총 8억3000만원의 사업비 중 영화제작소에 4억9200만원을 배분해 △색보정실(8K) △어시스트룸(4K) △DCP 마스터링룸 △편집실 및 교육실 등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한다.

나머지 3억3800만원은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의 △중합음향관입실(Protocols 2019 HDX) △음향녹음실(녹음 믹싱 콘솔) △음향관입실(Protocols 2019 HDX) △음향교육실 장비 업그레이드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또 장비 업그레이드에 발맞춰 후반제작지원사업의 지원편수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독립영화인과 지역 영화인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전주지역 영화·영상 단체별 연계를 통해 후반제작지원 인스플렉션을 구축하고, 후반제작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해 전주시가 한국 독립영화계의 후반제작지원 거점이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황교안 "식품클러스터 발전 당 정책 반영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은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미래산업의 가치로 커져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식량 자급률은 50%를 밑돌고 있으며 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 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허

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식품 산업의 안전 육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 과제"라며 "관련 산업을 1차 산업 관점에서 보서는 안되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산업으로 바라보고 국가차원의 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조속 추진과 백제 왕궁터를 관통하는 지방도의 지하화 예산지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확보 등을 요청했다.

또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은 기업지원을 위한 청년식품창업허브구축사업의 예산반영과 가정편의식(HMR)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체육 꿈나무 807명 '출사표'

25일 개최 소년체전 출전 80개 이상 메달 획득 목표

체육 꿈나무 807명이 '전북 명예'를 걸고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다. 20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익산 등 전북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도내에서는 총 1172명(선수 807명·임원 365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육상과 수영, 축구, 테니스, 유도, 유도 등 총 36개 종목(초등부 21개·중등부 36개)이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 전북 선수단은 80개 이상의 메달을 목에 건다는 목표다.

이는 대진추첨 이후 전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력이 상승해 지난해 대회보다 메달을 더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 기종종목(육상, 유도, 양궁)과 체급종목(레슬링, 유도, 태권도 등) 등에서 개최지 이점을 살려 선전해준다면 목표치보다 더 많은 메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도(77kg급)의 유동현(순창북중 3년)과 수영(여초부)의 이서아(서일초 5년)는 다관왕에 도전하며, 핸드볼의 이리송(화초)과 이리중이 동반 우승에 도전한다. /장은성 기자

이외에도 금산중(축구)과 군산중(야구), 남성중(배구), 김제중(하키) 등도 종목 우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체육대회는 과도한 시·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시도별 종합 순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